

대한민국발 0시 50분, 다시 부르는 네 개의 ‘인프라 플랫폼’

박갑동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출장과 여행으로 대전역을 자주 찾는다. 리모델링한 KTX 대전역을 보면 웅장한 외관과 화려한 불빛, 엄청난 규모의 승객과 물동량, 역 안팎의 거대상권과 첨단시설로 그 옛날 가락국수와 ‘대전발 0시 50분’의 추억을 느끼기 힘들 정도다. 기차역은 시골 5일장, 고속버스터미널, 백화점과 더불어 오래 동안 우리와 함께한 대표적인 ‘플랫폼’이었다.

자정을 지나서 기차역에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대합실에는 갈 길이 먼 사람들과 정처 없는 사람들이 줄고 있거나 표정 없는 얼굴로 TV를 본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면 낮의 번성함과는 달리 적막하다 못해 쓸쓸하다. 이 느낌은 아그네스 발차(Agnes Baltsa)의 ‘기차는 (오후) 8시에 떠나네’에서 풍기는 절제된 기다림의 비애를 넘어 콘스탄틴 게오르규(Constantin Gheorghiu)의 작품 ‘25시’에서 울리는 절망감에 더 가깝다. 심야의 대전역 플랫폼에서 낮의 활기 넘치는 풍경을 떠올리며 ‘플랫폼’을 곰곰이 되돌아본다.

최근 우리 앞에는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플랫폼’이 대우행이다. 과거 완행열차와 KTX의 차이, 플랫폼의 낮과 밤의 차이, 시골 5일장과 최신 대형 아울렛의 차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플랫폼으로, 지금까지 오프라인 플랫폼과는 달리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으로 가상과 현실을 빠르고 쉽게 연결하는 무한한 잠재력으로 시장의 판도를 순식간에 바꾼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삼성,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부터 첨단 스타트업까지 ‘플랫폼 기업’을 기치로 자신의 플랫폼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도 교육, 의료, 법률, 문화예술 등 전 영역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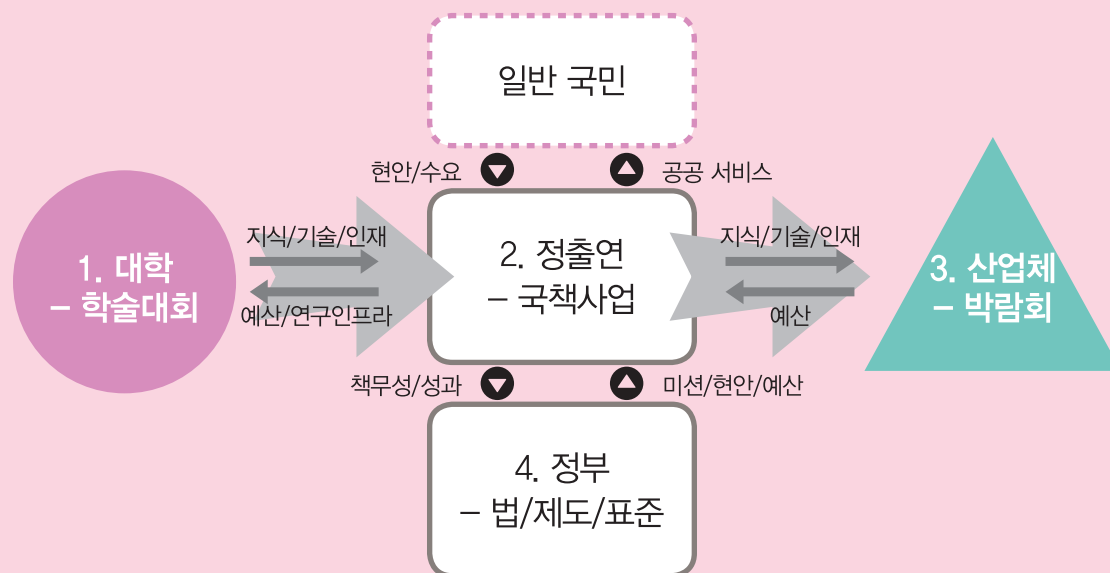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플랫폼 경쟁력은 어떨까? 아쉽게도 세계무대를 주도하는 토종 플랫폼은 없고, 아직 아시아를 넘지 못하며, 국내에

서도 새로운 가치 창출보다는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대리점이나 기존 고객의 재분배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도 생산-유통-소비의 전통 파이프라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플랫폼 변화의 속도/범위/방향에 더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간단한 ICT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만 있을 뿐인데도 순식간에 판도를 바꾸는 플랫폼의 매력에 모두들 열광한다. 온갖 플랫폼의 홍수 속에서 일반인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생소한 플랫폼에 혼란과 불안마저 느낀다. 그렇다면 플랫폼을 어떻게 볼 것이며, 바람직한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과학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네 개의 ‘인프라 플랫폼’과 이들의 선순환에 주목한다.

첫째는 대학이 주도하는 학술대회다. 관심도, 참여율, 토론의 열기, 지식/기술의 다양성에서 학회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한다. 다양한 학술대회가 많이 생긴 반면에 연계된 학술대회 간의 협력과 수렴 과정이 미흡하다. ‘손자’급 학회에서 검증 받은 대표 논문이 완성도를 높여 ‘아들’ 학회의 한 세션에서 소개되고, ‘아들’ 학회의 대표 논문이 다시 진화를 하여 최상위 학회에서 발표되며, 이렇게 길고 치열한 싸움을 이긴 작품이 세계무대에 소개된다면 얻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전문가 및 전문연구팀 발굴, 인재 양성, 기초원천 기술 확보, 과학기술 확산 등 우리 과학기술계의 숙원을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다. 산학연 전문가들의 참여와 심층 토론을 통해 다양한 씨앗을 지속 발굴하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정부출연연구소(정출연) 자체가 플랫폼이다. 여전히 정출연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으나, 이제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대학과 민간이 수행하기 어렵지만 국가전략상 꼭 필요한 국책사업을 주도해야 한다. 당연히 산학연 협력과



국제 협력의 중심에서 과학기술의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주도한다.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 인력이 끊임없이 정출연에 유입되고, 국가의 도전 목표를 해결하는 큰 기술을 완성한 후에 성과를 첨단산업이나 공공서비스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경력연구원, 중견연구원, 신진연구원은 물론 박사후연구원, 석박사 학위과정의 학생연구원이 한 배를 타고으로써, 창의적 아이디어와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어우러지는 드림팀이 만들어진다. 교육-연구-기술혁신의 중요한 연결고리이면서, 학문 후속세대를 넘어 과학기술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소중한 공간이다. 정출연은 대학생이나 과학교사 대상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탐색이라는 중요한 과학문화 확산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셋째는 기업이 주도하는 박람회다.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박람회 CES 2018에서 보듯이 세계인을 대상으로 최고의 제품과 최신 서비스를 공개하고, 투자 유치부터 새로운 연구 방향 설정까지 전방위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한다. 세계적인 제품이 국내 박람회에서 처음 소개되고 테스트베드 사업이나 시범 서비스로 이어지는 전략이 필수다.

넷째는 정부가 주도하는 법/제도/표준 관련 ‘규제 플랫폼’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뒷북 규제는 의욕 상실을 넘어 경쟁력을 위협한다. 첨단 과학기술의 양면성은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고, 필요 없는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며, 초기부터 사업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학에서 다양한 종자를 만들고, 국책연구소에서 싹을 틔워 묘

목으로 키우며, 기업에서 경쟁력 있는 열매를 수확한다. 정부는 건강하고 안전한지 신뢰성을 검증한 후에 세상에 내보낸다. 산학연관(産學研官)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인프라 플랫폼’에서 때론 주연과 조연으로, 때론 관객과 심판으로 적극 참여하는 것은 필수다. 열매 하나하나가 플랫폼이라고 볼 때, 네 개의 ‘인프라 플랫폼’과 이들 간의 선순환은 모든 영역의 플랫폼을 위한 ‘플랫폼 중의 플랫폼’이다.

2017년 말, 지구 종말을 경고하는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가 23시 57분 30초에서 30초 당겨져 23시 58분에 맞추어졌다고 한다. 북한 핵실험과 트럼프의 강경노선 때문이라고 하니 씁쓸하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연이어 발표된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이면서 동시에 연말에는 이 시계가 얼마를 가리키게 될지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로막는 현안을 적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게오르규가 말한 영원한 절망의 시간 25시에 다가간다. 24시 50분과 0시 50분은 둘 다 25시 10분 전으로 같은 시각이지만 만 하루의 차이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네 개의 과학기술계 ‘인프라 플랫폼’으로 우리의 현재를 절망의 25시로 가는 ‘24시 50분’이 아니라, 새벽을 지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희망의 ‘0시 50분’에 맞춰야 하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